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225>

JCCT 2024-3-28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연구 동향 분석 : 주제 범위 문헌 고찰

Research Trends in integrated Community Care Systems : A Scoping review

권우영*, 김가은**

Wooyoung Kwon*, Gaeun Kim**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제 범위 문헌고찰방법으로 JBI방법론적 지침에 따라 진행하였다. 문헌검색은 5개의 DB(RISS, DBpia, NDSL, KISS, NAL)에서 실시하여 최종분석에는 34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이용자와 제공자 측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용자 측면 결과는 서비스 만족도, 신체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변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제공자 측면 결과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주로 연구하였으며 기관 간 협업체계 활성화의 필요성과 서비스 수행 인력 부족이 많은 연구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확장에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 확립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확보, 지역 간 및 기관 간 협업체계 및 서비스 편차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주제 범위 문헌고찰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research trends on the integrated community care system in Korea and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e scoping review method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JBI methodological guidelines. A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in 5 databases (RISS, DBpia, NDSL, KISS, NAL), and 34 papers were select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analysis was categorized into user and provider aspects related to community care, and the results from the user aspect showed that variables related to service satisfaction and physical health status were used the most and showed positive results. Provider aspect results mainly studied problems and improvements due to service provision, and many studies showed the need to revitalize inter-agency collaboration systems and the lack of manpower to perform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future expansion of the integrated community care system, it will be necessary to not only establish criteria for selecting subjects, but also secure the expertise of service providers, establish a collaboration system between regions and institutions, and prepare measures to resolve service differences.

Key words : Elderly, Integrated Community care, Scoping Review

*정희원,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정희원,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1월 2일, 수정완료일: 2024년 1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1월 21일

Received: January 2, 2023 / Revised: January 21, 2024
Accepted: January 31, 2024
**Corresponding Author: sweetkwy@hanmail.net
Dept. of Nursing, Keimyung Univ, Korea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50년에는 40%를 선회할 것으로 추산된다[1]. 또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75세에 진입하는 2030년부터는 의료뿐 아니라 요양 및 돌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건강·요양·돌봄·일상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정책이다[2]. 이는 돌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장시키고 지역사회 기반의 ‘함께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장기요양 등급진입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입원이나 시설입소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보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저마다 다를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현장이 서로 상이한 철학과 정책을 갖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마다 다양한 돌봄 관련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절차·기준 등도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보건의료를 비롯한 요양·재활·주거 등 돌봄에 대한 다분야 협력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 통합돌봄은 추진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개인의 돌봄에 필요한 지속성과 포괄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행단위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앙정부로부터 노인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돌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을 제공받는 이용자뿐 아니라 제공자 입장에서의 현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 및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

금까지 서비스의 효과나 성과에 대한 보고나 연구결과가 제시되긴 하였으나 본 사업에 대한 포괄적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Kim 등[3]연구에서 선도사업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제시한 바도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제시된 연구결과로 관련근거가 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의 동향을 고찰하고 총체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로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특정 주제나 연구 영역에 관한 연구문헌들을 근거의 개념, 유형, 자료, 연구들에서의 차이 등을 매핑(mapping)하여 이해하고 조사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며[4,5]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본 사업에 대한 현 상황에서의 연구결과 및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관련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연구결과 및 성과를 이용자 측면과 제공자 측면에서 파악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국내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제범위 문헌고찰연구이다.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The Joanna Briggs Institute (JBI) 및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extension for Scoping Reviews (PRISMA ScR) 지침에 따라 (1) 연구 질문 도출, (2) 문헌 검색, (3) 문헌 선정, (4) 자료 추출, (5) 자료 요약 및 보고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5,6,7].

1) 연구 질문 도출

본 연구의 질문은 ‘노인대상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와 관련된 연구동향은 어떠한가?’이다.

2) 문헌 검색

자료검색은 2023년 10월 8일에서 10월 1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검색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학술데이터베이스

서비스(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DBpia),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국회도서관(National Assembly Library, NAL)등 총 5개의 검색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선행문헌의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수기검색을 시행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커뮤니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돌봄’, ‘서비스’, ‘긴장’, ‘주거’, ‘보건의료’등의 용어를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3) 문헌 선정

본 연구의 문헌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 (2)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3)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나 학위논문 및 연구 보고서 (4) 한글이나 영어로 출판된 연구이다. 검색된 논문 중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도사업 시기가 2019년 6월 이후임을 고려하여 2018년 이전 연구,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관련 없는 연구,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원문이 비공개된 연구는 제외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문헌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문헌선택여부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원문을 확인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검색된 문헌은 RISS 180편, DBpia 59편, NDSL 170편, KISS 191편, NAL 73편으로 총 673편이었으며 중복논문 291편을 제외하였고, 이후 382편에 대하여 연구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문헌 348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4편의 문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그림 1>.

4) 자료 추출

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분석틀은 주제범위 문헌고찰의 권고사항[5,7]에 따라 Microsoft excel sheet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선택 문헌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제를 바탕으로 저자, 출판연도, 출판유형, 연구설계유형, 연구대상, 연구분야, 서비스지역, 대상자 수, 서비스 종류, 서비스 기간, 종속변수, 효과 및 결과 등을 추출하였다.

5) 자료 요약 및 보고

최종 34편 문헌에 대해 추출된 자료는 일반적인 특성과 주제범위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저자, 출판연도, 출판유형, 연구설계유형, 연

구 대상, 연구분야, 연구지역을 분석항목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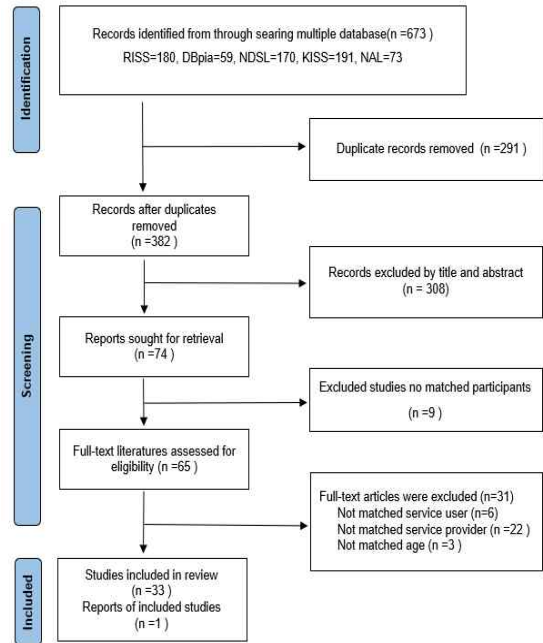


그림 1. 문헌선택 흐름도
 Figure 1. Literature selection flow chart

연구설계유형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나누어 분석하였고 연구대상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이용자와 제공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분야는 저자정보를 기반으로 저자의 학문분야로 분석하였고 연구지역은 서비스가 진행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주제범위 특성으로는 연구문헌의 내용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의 이용자 측면, 제공자 측면으로 나누어 제공된 서비스 프로그램 유형과 특성, 연구 및 보고서에서 제시한 종속변수, 효과 및 결과를 고찰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은 주제에 따라 표로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문헌의 일반적 특성

선택문헌의 일반적 특성은 출판연도, 출판유형, 연구설계유형, 연구대상, 연구분야, 서비스지역, 대상자 수, 서비스 종류, 서비스 기간 등으로 구분하였다<표 1>, <표 2>.

출판연도는 2020년 2편(5.9%), 2021년 11편(32.35%), 2022년 10편(29.4%), 2023년 11편(32.35%)으로 관련 연구나 보고서는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출판유형은 석·박사 학위논문이 5편(14.7%)이었으며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28편(82.4%), 연구보고

서 1편(2.9%)이었다.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28편중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n Citation Index, KCI) 등재지에 실린 연구 19편(55.9%), KCI 등재 후보지(Korean Citation Index Candidated, KCIC) 2편(5.9%), SCOPUS 2편(5.9%)이었고, 기타 5편(14.7%)이었다.

연구설계유형은 양적연구 19편(55.9%), 질적 연구 10편(29.4%), 혼합연구 5편(14.7%)으로 양적연구가 많았다. 양적연구 19편 중 유사 실험연구는 4편(11.7%), 단일군 사전사후설계 5편(14.7%), 증례연구 2편(5.9%)이었으며 설문조사 8편(23.5%)이었다. 질적 연구는 11편 모두 현상학적 연구였다.

연구대상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 18편(52.9%), 제공자 10편(29.4%),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6편(17.6%)이었다. 연구분야는 저자 정보를 기반으로 구분한 결과 사회복지분야가 9편(2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치료분야 8편(23.5%),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분야 5편(14.7%), 치·위생분야 3편(8.8%)순이었고, 간호학, 물리치료, 약학분야도 각 1편(2.9%) 있었다. 연구지역은 서비스가 제공된 지역을 중심으로 충청도 7편(20.6%), 전라도 6편(17.6%), 경기도와 경상도 각 3편(8.8%), 제주도 1편(2.9%)순이었으며 여러 지역 통합연구도 9편(26.5%)이었다.

2. 주제범위 특성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 측면

본 연구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수행된 연구는 총 18편 있었다. 18편 중 서비스 제공에 따른 효과평가와 관련된 실험연구가 11편이었고 조사연구 6편, 질적연구 1편이었다. 실험연구는 유사 실험연구 4편[A4,A15,A20,A30], 단일군 사전사후설계 5편[A6,A7,A10,A16,A21], 증례연구 2편[A9,A31]이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케어복합 서비스[A7], 작업치료[A15], 구강관리[A4,A9,A31], 퇴원연계서비스, 주거환경개선[A6,A21], 방문간호[A30], 운동[A10], 재활[A1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Wel-Tech/ICT/IoT기반의 통합돌봄[A20]등이 있었다. 서비스 기간은 1.5~42개월로 다양하였으며, 기간이 보고되지 않은 연구도 다수 있었다.

효과 및 결과지표로는 서비스 만족도[A7,A14,A18,A20,A32], 돌봄부담[A5,A27,A32,A34], 신체기능[A4,A6,

A7,A9,A10,A16,A20,A31], 인지기능[A20,A25], 심리적지

표 1. 선정문헌의 일반적인 특성(N=3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lected literature(N=34)

변인	범주	n(%)
출판 연도	2020	2(5.9)
	2021	11(32.4)
	2022	10(29.4)
	2023	11(32.4)
출판 유형	Journal	28(82.4)
	SCOPUS	2(5.9)
	KCI	19(55.9)
	KCIC	2(5.9)
	Other(korean general journal)	5(14.7)
	Thesis	5(14.7)
연구 설계 유형	Report(Not published)	1(2.9)
	Descriptive research	19(55.9)
	Survey research	8(23.5)
	Quasi-experimental design	4(11.8)
	Single group pre-post test	5(14.7)
	Case report	2(5.9)
	Qualitative research	10(29.4)
	Survey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3(8.8)
	Survey research and Quasi-experimental design	1(2.9)
	Survey research and Quasi-experimental design and Qualitative research	1(2.9)
연구 대상	User	18(52.9)
	Provider	10(29.4)
	User and Provider	6(17.7)
연구 분야	Social welfare	9(26.5)
	Occupational therapy	8(23.5)
	Health insurance	5(14.7)
	Dental hygiene	3(8.8)
	Nursing	1(2.9)
	Physical therapy	1(2.9)
	Pharmacy	1(2.9)
	Other related studies	6(17.7)
	서비스 지역	Chungcheongdo
Jeollado		6(17.7)
Gyeongido		3(8.8)
Gyeongsangdo		3(8.8)
Jejudo		1(2.9)
Regional integration		9(26.5)
Not reported	5(14.7)	

지[A6,A7,A10,A15,A20,A21], 낙상예방[A6,A7,A15,A16,A20,A21,A32], 삶의 질[A4,A8], 재택복귀[A5,A27,A30,A32,A34]등이 있었다<표 3>.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A17], 케어안심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호출기와 센서, 스마트액자 등의 장비 사용 만족도[A14], 인공지능스피커, 생활감지 센서, 위급상황 호출 서비스 등에 대한 재이용 의사 조사[A18], 기존 복지 서비스 대상자와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대상자의 삶의

질 비교[A22], 주거환경 개선서비스가 주관적인 건강상태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A25], 지속적인 재택 거주에 미치는 영향요인[A2] 등의 조사연구와 의료기관 장기 입원한 독거노인의 퇴원 이후 재가생활에 대한 경험을 탐색한 질적연구도 있었다[A8].

그 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식변화[A11], 방문진료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의 의료이용경험과 만족도[A24],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복지사,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으로 인한 만족도[A32] 등의 연구가 있었다<표 3>.

서비스 영역은 보호 및 돌봄, 주거지원, 건강 및 보건의료, 통합돌봄의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조화시켜 분석하였다<표 4>.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보호 및 돌봄 영역과 관련된 연구는 총 7편[A7,A8,A14,A18,A20,A32,A15]이었으며 제공된 서비스로는 케어복합, 작업치료, 퇴원연계, ICT기반과 관련된 서비스 등이 있었다. 통합돌봄 서비스만족도는 관련연구 5편[A14,A18,A20,A32,A7] 모두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부담은 감소되었다고 보고한 연구가 1편[A32]이었다. 신체기능은 일상생활활동이 증가되었다는 연구와 신체기능이 유지되었음을 보고한 각 1편[A7, A20]의 연구가 있었다. 인지기능은 증가하였고[A20], 심리적지지 측면에서 우울이 감소되었음을 보고한 연구가 3편[A20,A7, A15], 삶의 질향상에 대한 연구가 3편[A20,A32,A15] 있었고, 낙상 효능감 및 수면의 질 증가에 대한 연구가 각 1편[A7, A15]이었다. 재택복귀에 대한 지표로 장기 입원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퇴원 후 의료관리사의 도움으로 재가로의 자립생활 및 일상생활회복으로 활력을 찾았다는 연구도 1편[A8]이었다.

주거지원영역과 관련된 연구는 총 4편[A6,A17,A21, A25]이었으며 제공된 서비스는 주거환경개선 서비스가 있었고, 결과지표에는 환경개선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증가[A17], 신체기능 증가[A21,A6], 인지기능 증가[A25], 사회적 참여증가[A21,A6], 낙상위험 감소[A21, A6] 등을 보고하였다.

건강 및 보건의료영역과 관련된 연구는 총 7편[A4, A9,A10,A16,A30,A31,A24]이었으며 제공된 서비스는 방문구강관리, 방문운동, 방문재활,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이었다. 결과지표로는 전반적 건강상태 증진[A4,A9, A16,A31], 신체부위통증 감소 및 보행능력 증가[A10], 균형능력 증가[A16], 낙상위험 감소[A16] 등이 있었다.

심리적 지지측면의 지표에서는 우울과 불안이 감소되

표 3. 주제 내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분포
 Table 3. Research distribution according to research method within subject

주제	n (%)	연구방법	n (%)	No.	
이용자	18 (52.9)	Survey research	6 (17.6)	A2,A14, A17,A18, A22,A25	
		Experimental research	Quasi-experimental design	4 (11.8)	A4,A15, A20,A30
			Single group pre-post test	5 (14.7)	A6,A7, A10,A16, A21
			Case report	2 (5.9)	A9,A31
		Qualitative research	1 (2.9)	A25	
제공자	10 (29.4)	Survey research	2 (5.9)	A33,A3	
		Qualitative research	7 (20.6)	A1,A12, A19,A23, A26,A28, A29	
		Survey and Qualitative research	1 (2.9)	A13	
이용자 & 제공자	6 (17.6)	Qualitative research	2 (5.9)	A11,A32	
		Survey and Qualitative research	2 (5.9)	A5,A27	
		Survey and Experimental research	1 (2.9)	A34	
		Survey and Experimental and Qualitative research	1 (2.9)	A24	

었다는 연구[A4], 삶의 질 향상[A10]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재가거주기간 증가, 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원률 감소 등[A30]을 보고한 연구결과가 있었다.

통합돌봄영역과 관련된 연구는 총 6편[A2,A22,A5, A11,A27,A34]이었다. 결과지표로는 서비스 만족도 관련 연구 4편[A5,A27,A34,A32], 삶의 질 향상 관련연구 3편[A32,A34,A27], 일상생활변화 2편[A5, A11], 대인관계 향상 2편[A11,A34], 우울 및 불안 감소 1편[A11] 등이 있었다. 건강상태지표로는 주관적 건강수준 증진 2편[A27,A34], 신체적 건강 증진 1편[A11]이 있었다. 재가거주기간의 증가 4편[A5,A24,A27,A34], 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원률 감소 2편[A24,A34], 부양부담 감소 4편[A32,A34,A27,A5]등도 있었다<표 3>.

-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자 측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표 2. 선정문헌의 세부특성과 변수

Table 2. Detailed characteristics and variables of selected literature

번호	저자 (출판연도)	출판 유형	연구 유형	연구 대상자	대상 자 수	서비스 종류	서비스 기간 (month)	서비스 지역	결과지표
A1	Jung (2020)	T	QR	P	13	통합돌봄	NR	NR	사례관리 경험
A2	Lee (2020)	J	SR	U	505	통합돌봄	NR	JL	재가복지 영향요인
A3	Bae (2021)	J	SR	P	402	통합돌봄	NR	RI	직무수행실태, 교육요구도
A4	Gi (2021)	T	QE	U	40	구강관리	1.5	CC	구강건강, 타액 유출량, 삶의 질
A5	Gong (2021)	R	MR	U,P	128/ 60	통합돌봄	9	JJ	서비스 만족도, 재가거주의향, 일상생활유지, 개선점
A6	Han (2021)	J	SG	U	36	주거환경 개선	6	JL	낙상위험, 이동성, 사회참여 영역
A7	Hwang (2021)	J	SG	U	26	케어복합	12	CC	일상생활활동, 낙상효능감, 우울
A8	Hwang (2021)	J	QR	U	8	퇴원연계	7	NR	재가 전환 경험
A9	Jang (2021)	J	CR	U	3	구강관리	24	CC	치면세균막지수, 실태지수, 구강노쇠수준, 타액분비율
A10	Kim (2021)	J	SG	U	103	운동	20	JL	신체통증정도, 보행능력, 우울, 불안
A11	Park (2021)	J	QR	U,P	20/2 60	통합돌봄	NR	RI	서비스 이용 인식, 서비스 제공 인식, 개선점
A12	Shin (2021)	J	QR	P	15	통합돌봄	NR	GS	서비스 경험
A13	Yoo (2021)	J	MR	P	300	통합돌봄	NR	RI	케어매니지먼트 필요성
A14	Ahn (2022)	J	SR	U	9	Wel-Tech /리빙랩	5	GG	ICT돌봄 만족도
A15	Kim (2022)	J	QE	U	32	작업치료	3	NR	우울감, 수면의 질, 삶의 질
A16	Kim (2022)	J	SG	U	150	재활	20	CC	손ROM과 근력, 균형능력, 낙상도
A17	Kim (2022)	J	SR	U	150	주거환경 개선	12~24 *	CC	주거환경개선 만족도
A18	Kim (2022)	J	SR	U	930	AI스피커	NR	GS	AI 재이용 의사
A19	Lee (2022)	J	QR	P	10	퇴원연계	NR	RI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경험
A20	Lim (2022)	J	QE	U	37	Wel-Tech /ICT/IoT	3	NR	삶의 만족도, 신체기능, 우울, 불안, 인지기능
A21	Oh (2022)	J	SG	U	127	주거환경 개선	21	JL	주거환경 낙상위험 평가, 기능장애 수준
A22	Sin (2022)	T	SR	U	476	통합돌봄	NR	CC	삶의 질 비교
A23	Suh (2022)	J	QR	P	13	통합돌봄	NR	RI	직무인식수준, 협업관련 개선점
A24	Choi (2023)	J	MR	U,P	339	방문진료	29*	RI	재가거주기간, 의료비 변화, 의료기관 입원률, 시설 입소율, 방문의료 문제점
A25	Hwang (2023)	J	SR	U	1,075	가정환경 개선	24*	JL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
A26	Kang (2023)	J	QR	P	10	방문약료	NR	RI	방문약료 경험 비교
A27	Kim (2023)	J	MR	U,P	543/ 16	통합돌봄	36*	NR	서비스 만족도, 재가거주기간,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상태, 비용부담, 개선점
A28	Kim (2023)	J	QR	P	90	통합돌봄	NR	GS	개선점
A29	Min (2023)	J	QR	P	23	통합돌봄	NR	RI	통합사례관리와 통합적 구축, 개선점
A30	Park (2023)	J	QE	U	140	방문간호	8	GG	재가거주기간, 의료기관 입원율, 시설 입소율

A31	Park (2023)	J	CR	U	3	구강관리	3	CC	구취농도 변화
A32	Seo (2023)	J	QR	U,P	7/8	AI스피커/ AI복지사	42*	JL	만족도, 삶의 질, 비용 부담, 효율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A33	Yoo (2023)	T	SR	P	338	통합돌봄	NR	GG	서비스 질
A34	Yoo (2023)	T	MR	U,P	2,440/ 2,363	통합돌봄	12	RI	재가거주기간, 장기요양 진입율, 재택복귀유지율, 시설입소율, 요양병원 입원율, 복약순응도, 비용부담, 개선점

U:User, P:Provider, J:Journal, T:Thesis, R:Report(not published), CC:Chungcheongdo, JL:Jeollado, GG:Gyeonggi, GS:Gyeongsangdo, JJ:Jeju, RI:Regional integration, NR:Not reported, SR:Survey research QE:Quasi-experimental design SG:Single group pre-post test CR:Case report, QR:Qualitative research, MR*:Mixed research(Survey and Qualitative research), MR**:Mixed research(Survey and Qualitative research and Quasi-experimental design) IG:intervention group, CG:control group, † :Period varies by case

표 4. 주제 내 연구영역에 따른 연구결과

Table 4. Research resulting according to area within subject

서비스 대상	서비스 영역	서비스 종류	효과지표	결과	관련논문
서비스 이용자 측면	보호 및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케어복합 작업치료 퇴원연계 	•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증가	A7,A14,A18,A20,A32
			• 돌봄부담	비용부담 감소	A32
			• 신체기능	일상생활 활동 증가	A7
				신체기능 유지	A20
			수면의 질 증가	A15	
			• 인지기능	인지기능 증가	A20
			• 심리적지지	우울 감소	A7,A15,A20
			• 낙상예방	낙상 효능감 증가	A7
	• 삶의 질	삶의 질 향상	A15,A20,A32		
	• 재택복귀	재가생활 회복	A8		
	주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개선 	•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증가	A17
			• 신체기능	일상생활 활동 증가	A6,A21,A25
				주관적 건강상태 증진	A25
			• 인지기능	인지기능 증가	A25
			• 심리적지지	사회적 참여 증가	A6,A21
	• 낙상예방	낙상위험 감소	A6,A21		
	건강 및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간호 및 진료 구강관리 운동 재활 	• 신체기능	신체기능 증가	A4,A9,A10,A16,A31
			• 심리적지지	우울, 불안 감소	A10
			• 낙상예방	낙상도 감소	A16
			• 삶의 질	삶의 질 향상	A4
			• 재택복귀	재가거주기간 증가	A30
				의료 및 요양시설 입원률 감소	A30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돌봄 	•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증가	A5,A27,A32,A34
			• 돌봄부담	부양부담 감소	A5,A27,A32,A34
			• 신체기능	일상생활 활동증가	A5,A11,A34
				주관적 건강수준 증진	A27,A34
				신체적 건강증진	A11
			• 심리적지지	우울, 불안 감소, 대인관계 향상	A11
• 삶의 질			삶의 질 향상	A27,A32,A34	
• 재택복귀			재가거주기간 증가	A5,A24,A27,A34	
			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원률 감소	A24,A34	
• 통합돌봄			• 역량강화	전담인력 업무수행능력 부족	A3,A13,A19,A23,A28

서비스 제공자 측면	전담인력 체계 강화		•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제공자 간 직무수행기준 제시	A1,A5,A11,A23,A24,A29
				교육기회 확대	A1,A3,A5,A23,A27,A28,A34
				전문인력 확보 부족	A5,A11,A13,A19,A23,A24,A27,A28,A29
				전문인력 배치 부족	A5,A13
	정체성 확립	• 통합돌봄	• 대상자 발굴 및 기준	대상자 발굴 한계	A5,A11,A13,A24,A27
				대상자 선정기준 미흡	A5,A11,A13,A24,A28,A29,A34
	서비스 포괄성	• 통합돌봄	• 서비스 연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강화	A11,A19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한계	A5,A11,A27,A28,A34
			• 서비스 확충	돌봄기술 지속적 개발	A32
				지역사회 자원 및 인프라 부족	A5,A13,A19,A34
				다양한 서비스 개발 부족	A34
				서비스 제공자간 연계	제공자 간 의사소통시스템 강화
	서비스 파트너십	• 통합돌봄	• 기관 간 연계	기관 간 협업체계 활성화	A1,A5,A11,A12,A13,A19,A23,A26,A27,A28,A29,A34
				기관 간 정보시스템연계 미흡	A26,A28,A29,A32,A34
			• 지역 간 연계	기관 간 통합사례관리 및 공유 활성화	A1,A27,A29
지역 간 편차				A5,A26	

는 총 10편으로 제공자 간의 조직 협력이 서비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A33], 서비스 제공 실무자의 직무수행실태와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A3]등이 있었다. 또한 보건, 복지, 돌봄 등 다양한 영역 전문가의 통합돌봄 사례관리에 대한 경험[A1,A12], 퇴원하는 환자의 지역사회연계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사의 활동 경험[A19], 방약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사의 경험[A26] 등 경험을 탐색한 연구가 있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관련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연구[A28], 통합사례관리와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A29], 통합돌봄 제공자의 직무와 협업 관련 문제점 및 개선점[A23]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 외 전문직 서비스제공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의 필요성 조사[A13]한 연구도 있었다<표 3>.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의 주요영역은 전담인력 체계강화, 정체성 확립, 서비스 포괄성, 서비스 파트너십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에서 사용한 결과 지표는 다음과 같다<표 4>. 전담인력 체계 강화와 관련된 연구는 총 12편이었으며, 결과지표로는 전담인력 업무수행능력 전문성[A3,A28,A13,A19,A23], 교육기회 확대[A5,A34, A28,A3,A23,A1,A27], 제공자 간 직무수행기준 제시[A23,A1,A24,A11,A29,A5]등이 있었으나 결과는 부정적인 편이었다. 인력확보 측면에서도

수행인력의 부족, 확충필요, 통합돌봄 전담팀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A24,A11, A28,A13,A23,A29,A27,A5,A19].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연구는 총 8편으로 서비스 대상자 발굴의 한계 및 선정기준 미흡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A24,A34,A28,A29,A11,A5, A13,A27].

서비스 포괄성과 관련된 연구는 총 8편으로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가 5편[A34, A11,A28,A27,A5], 퇴원환자 지역사회로의 연계 부족에 대한 연구가 2편[A19,A11]이었다. 다양한 서비스 확충 및 지역사회 자원이나 인프라 부족에 대한 연구도 4편 [A34,A5,A13,A19]이었다.

제공자간 파트너십과 관련된 연구는 총 13편으로 제공자 간 의사소통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가 7편[A28,A13,A23,A29,A1,A5,A26]이었고 기관 간 협업체계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는 13편[A34, A12,A11,A1,A19,A28,A23,A26,A13,A29,A1,A27,A5], 정보시스템의 연계가 미흡함을 보고한 연구가 5편[A26, A28,A34,A29,A32], 통합사례관리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된 연구가 3편[A29,A1, A27], 동일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편차가 발생되고 있음을 보고한 연구가 2편[A26,A5]이었다<표 4>.

IV. 논 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와 관련하여 선 도사업 시작시기인 2019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출판된 연구논문이나 보고서를 토대로 주제범위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 영역은 보호 및 돌봄, 주거지원, 건강 및 보건의료, 통합돌봄의 총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보호 및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로는 방문케어복합, 퇴원연계, ICT기반 서비스가 있었으며 주거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로는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서비스가 있었다.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로는 방문구강관리, 방문운동, 방문작업치료, 방문재활,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통합돌봄이 있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재가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서비스 명칭이나 내용이 다양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호 및 돌봄영역에 포함된 서비스는 대상노인에게 보조기기 제공 및 생활환경정리, 교육적 정보 제공,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도움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케어 복합서비스와 신체활동과 인지 활동, 일상생활활동 및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으로 이루어진 작업치료서비스가 있었다. ICT기반과 관련된 서비스는 응급호출기와 센서, 스마트액자, 리빙랩, 인공지능 복지사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돌봄기기를 케어안심주택에 거주하거나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에게 제공하여 세대 내 어르신에의 재실여부, 응급상황이나 생활감지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안부를 확인하였으며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정서지원등과 필요한 경우 대면 케어를 병행하였다. 추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재가노인의 거주생활편의와 안심, 응급상황 대처 그리고 기기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돌봄현장에서 디지털 결합 방식과 방문중재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중재 연구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

퇴원연계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재택복귀를 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본인 집에서 일상생활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퇴

원 이후 노인은 입원 기간 동안 활동 부족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초래되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기 힘들어지는 정서적 의존도가 높고[8]. 특히 장기간 입원 치료한 노인은 다양한 신체적·정서적 문제가 더해져 퇴원 후 일상생활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9]. 따라서 퇴원연계서비스 이후 재가노인의 일상생활을 일정기간 반복 조사하는 종단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주거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로는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서비스로 가정 내 안전 위험요인과 대상자의 기능적 수준이나 욕구를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손잡이, 조명설치, 미끄럼방지 패드 등이나 낙상이나 감전 등의 사고위험물을 제거하고 환경 재배치 등 거주노인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거활동을 제공하는 주택 개보수 서비스로 이루어졌다. 주택유형에서는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물리적 환경의 위험이 거주자들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자립적인 생활제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A6]있었으며 시공업체나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확실적인 제공이 아닌 거주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하고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건강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로는 지구력과 근력강화운동으로 이루어진 방문운동서비스, 재활치료와 운동치료로 이루어진 방문재활서비스가 있었다. 노인의 신체 능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로 인해 매우 약화되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일상생활활동의 독립적인 삶을 방해하게 된다[10]. 재가 지속거주를 위한 허약한 노인의 근력감소나 안전사고를 대비한 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하거나 낙상예방을 위해 고려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욕창간호나 비위관, 요로관 관리와 같은 치료적 간호와 식이요법, 체위변경법 등 교육적간호로 구성된 방문간호서비스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재가거주노인의 재가거주기간이 증가하고 의료기관 입원이나 시설 입소율이 감소된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A30,A24]있어 건강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가 계속거주를 위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으며 중재 기간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도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 측면의 보호 및 돌봄, 주거지원, 건강 및 보건의료, 통합돌봄의 4가지

영역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호 및 돌봄영역에서 자립 돌봄으로 인한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을 지원하는 케어복합, 작업치료, ICT를 이용한 안심돌봄 등의 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 충족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상자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적인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으로 우울 감소와 인지기능 증가, 낙상 효능감 증가, 삶의 질 향상이 나타났고 신체기능 변화지표에서 일상생활활동 증가, 신체기능이 유지되었으며 퇴원 후 자립생활 및 재가 일상생활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재가 계속거주와 자립을 돕고 심리적인지지만 아니라 신체적인 기능에서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와 돌봄이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제공될 때의 중장기적인 효과나 변화양상도 비교 조사될 필요가 있다.

주거지원영역에서는 환경개선으로 재가생활에 만족도가 증가하고 낙상위험이 있는 주거환경문제가 감소되었으며 인지기능이 증가하고 주관적 건강상태 증진 및 이동성과 일상생활활동, 사회적 참여가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은 가정이라는 공간의 좁아진 영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정환경개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11]. 노인은 방어능력이나 균형능력이 저하되어 낙상 시 큰 외상을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기능,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 주거 환경개선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는 운영되는 기관마다 지원되는 예산규모와 자원연계가 다르거나 재정적 지원의 제한으로 인해 제공된 서비스가 다양하였으므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 및 보건의료영역에서는 대체로 건강수준과 신체기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심리적지지 지표에서는 건강관련 서비스 이용으로 삶의 질과 우울 및 불안이 감소되었고 재가거주유지 지표에서는 재가거주기간이 증가되고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입원 및 입소률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문적인 간호와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방문의료,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

적 건강관련 변수들의 연구는 부족하여 향후 다양한 건강관련 변수가 조사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 영역에서는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대인관계 향상, 우울, 불안 감소 등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므로[13] 노인 대상의 통합돌봄은 특히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Sin[A22]의 연구에서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의 삶의 질을 비교하였을 때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발굴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는 대부분 만성질환, 중증질환을 갖고 있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재가거주 노인들로 신속한 의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전담인력 기능적 체계 강화, 정체성 확립, 서비스 포괄성, 서비스 파트너십의 4가지 영역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담인력 기능적 체계 강화 영역에서는 전담인력의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부족, 교육기회 확대, 수행 인력 부족, 제공자 간의 직무수행기준 제시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복지·요양·주거 등 지속적인 욕구의 순환 고리에 따라 요구받은 역할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통합돌봄 사업에는 신규 임용자들이 많이 배치[A27]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의 배치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담인력의 전문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에 있어서 단계적인 인력 확대 배치와 지역별 대상자 수에 적절한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실무 현장에서의 인력구성과 서비스 질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다양한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체성 확립영역에서는 대상자 발굴 및 기준지표에서 대상자 발굴 한계와 대상자 선정기준 미흡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객관적인 욕구조사나 퇴원환자를 비롯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속적인 대

상자 발굴의 어려움이 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존 복지 사업과의 모호한 경계성으로 실제 현장에서 대상자 선정 시 혼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 특성의 구분에 따른 서비스 이용과 제공에 대한 다양의 변수를 포함한 비교연구와 중재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포괄성 영역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관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 및 인프라 부족, ICT기반 돌봄기술 지속적 개발, 다양한 분야별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는 방문의료시스템은 이제 시작단계인 만큼 민간 의료기관의 절대적인 참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경험을 조사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서비스 파트너십 영역에서는 제공자 간의 의사소통 시스템 강화, 기관 간 협업체계 활성화, 정보시스템연계 미흡, 통합사례관리와의 공유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간 편차 및 기관 간 협업체계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제공기관 간 협업체계 결여와 정보시스템연계 미흡은 서비스의 혼선과 누락 및 중복자 등을 발생시킴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대상이 없도록 기관 간 협업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돌봄 네트워크 구축 연구가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와 관련된 34편의 연구를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으로 분석하여 노인 대상의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연구결과 및 성과를 이용자 측면과 제공자 측면에서 파악하였으며 향후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최종 선정된 34편 문헌의 일반적 특성과 주제범위 특성으로 나누어 이용자 측면과 제공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보호 및 돌봄, 주거 지원, 건강 및 보건의료, 통합돌봄의 영역이 있었고, 제공자 측면에서는 전담인력 기능적 체계 강화, 정체성 확립, 서비스 포괄성, 서비스 파트너십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통합돌봄 이용자 측면 연구는 18편

(52.9%), 제공자 측면 연구는 10편(29.4%),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6편(17.6%)이었고, 실험연구 및 조사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결과지표는 이용자 측면에서 돌봄 서비스 만족도, 신체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변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대체로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제공자 측면은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점 연구가 많았으며 기관 간 협업체계 활성화의 필요성과 수행 인력 부족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연구를 체계적이고 폭넓게 분석하여 향후 통합돌봄 제도의 확장에 있어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비교적 폭넓은 연구를 고찰한데 비해 연구의 질적평가는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 및 타당성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양적연구가 누적과 메타분석 등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및 확장에 있어서 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기준 확립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인력의 충원 및 배치, 전문성 확보 등에 대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간 편차 해소 및 기관 간 협업체계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설계 및 다양한 건강관련 지표에 대한 효과평가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2022), "Future population projections".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20), "Community integrated care self-promotion guidebook".
- [3] K. B. Kim, M. H. Heo, H. E. Jang, J. W. Noh, J. M. Kim, "Systematic Review on Outcome and Trends of Community Care Pilot Project in Kore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2, No. 5, pp. 159-167, 2022. DOI: 10.22156/CS4SMB.2022.12.05.159
- [4] Daudt HM, van Mossel C, Scott SJ, "Enhancing the scoping study methodology: a large, inter-professional team's experience with Arksey and O'Malley's framework",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13:48. 2013.

- [5] Peters MD, Marnie C, Tricco AC, Pollock D, Munn Z, Alexander L, et al, "Updated methodological guidance for the conduct of scoping reviews", *JBIM Evidence Synthesis*, 18(10): 2119-26. 2020.
- [6] Tricco AC, Lillie E, Zarin W, et al, "PRISMA extension for scoping reviews (PRISMA-ScR): checklist and explanation", *Ann Intern Med*, 169(7): 467-473, 2018.
- [7] H. J. Seo, S. Y. Kim, "What is Scoping Review??", *The Korean Association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6(1), 16-21, 2018. DOI: 10.34161/johta.2018.6.1.003
- [8] Lin PC, Chang SY, "Functional recovery among elderly people one year after hip fracture surgery",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2(1): 72-76. 2004.
- [9] S. S. Baek, "Improvement of transitional care management for older adults in Korea : a comparative study in the US and Australia",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2018.
- [10] S. H. Yang, "A Suggestions of Future Direction of the Integrated Community Care Business for Improvement of the Elderly's Life Care", *Journal of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5(8): 423-432, 2021. DOI: 10.21184/jkeia.2021.12.15.8.423
- [11] S. M. Park, J. H. Park, M. Y. Jung, "Trend Analysis of Domestic Studies on Home Modification for Older Adults: Home Modification as a Way of Supporting Aging in Place", *Kore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8(1): 1-14, 2020. DOI: 10.14519/kjot.2020.28.1.01
- [12] Gallagher, B., Corbett, E., Freeman, L., Riddoch-Kennedy, A., Miller, S., Smith, C., ... Zarrow, A., "A fall prevention program for the home environment", *Home Care Provider*, 6(5): 157-163. 2001
- [13] J. S. Kwon,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Middle and Old Adult One-Person Household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5, no. 1, pp. 153 - 167, Feb. 2019. DOI: 10.17703/JCCT.2019.5.1.153